

2013년

최고 흥행작 7번방의 선물



2014년

300만명 돌파한 '수상한 그녀'



1인당 영화 5.5회 봤다... 광주 전국 2위

영진위 '영화산업 결산 보고'
10만명당 7개 최다스크린
관람료 7000원 미만 저렴
전남은 2.06회로 전국 최저

지난해 개봉영화 905편
관람객수 2억1332만명
'탑 10' 중 한국영화 9개
올해 '수상한 그녀' 상승세

영화 '겨울왕국'이 1일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 모두 544만 명의 관객을 동원, '공부팬더 2' (506만명)가 가지고 있던 기록을 깼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변호인'은 1일까지 1111만명을 동원하며 '살미도' (1108만명)를 제치고 한국영화 흥행 8위를 차지했다. 설날을 겨냥한 '수상한 그녀' 역시 상승세가 무섭다. 11일만에 300만명을 넘어섰다. 입소문이 좋아 흥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벅두, 한국영화계는 여전히 흥행중이다.

2013년 한국 영화계는 최대 호황기를 맞았다. 극장 매출액은 사상 최고인 1조 5500억원을 기록했고 케이블 TV 등 부가관객과 해외시장까지 더한 전체 영화 산업 매출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총 관객수도 사상 처음 2억명을 넘어섰다. 광주 시민들의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는 5.48회였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최근 펴낸 '2013 영화산업 결산 보고'를 살펴봤다.

◇지난해 개봉영화 905편
지난해 개봉 영화는 2012년 631편에서 905편으로 크게 늘었다.

1280만명을 동원한 '7번방의 선물'을 비롯해 '실국열차', '관상', '아이언맨 3', '베를린', '은밀하게 위대하게', '변호인'(상영중), '숨바꼭질', '더 테러 라이브' '감시자들'이 박스오피스 탑 10에 들었다.

극장 관객수는 2억1332만명으로 2012년(1억9400만명)에 비해 9%가 증가했다.

광주 지역 전체 관람객은 832만명(3.9%)으로 지난해 763만명보다 70만명이 증가했다. 1인당 관람 횟수는 5.48회로 2012년 5.14회보다 늘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의 6.01회에 이어 두번째, 3년 연속 같은 순위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평균 관람 횟수는 4.25회였고 부산(5.02회)과 대전(5.19회)이 광주의 뒤를 이었다. 전남은 총 관객 362만명에 평균 관람 횟수는 2.06회로 지난해 1.72회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꼴찌를 차지했다.

전국 극장은 333개, 2184개 스크린으로 2012년 314

개 2081개 스크린보다 늘어났다. 광주의 경우 14개 영화관 107개 스크린으로 2012년의 12개 88개 스크린보다 스크린 수에서 21.6%가 늘었다. 38.5%가 늘어난 울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충장로 옛 제일시네마 자리에 롯데 시네마가 새롭게 오픈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광주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대전(151만명)은 61개며 인천(280만명·111개), 대구(241만명·131개)순이다. 전남은 7개 49개 스크린에서 8개 52개 스크린으로 소폭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스크린 수는 광주가 7개로 압도적 1위다. 영화도시 부산은 5.33개(183개 스크린), 대구는 5.3개(131개 스크린)였으며 가장 많은 475개 스크린을 갖고 있는 서울은 4.75개였다. 전국 평균은 4.34개다.

지난해 극장 전체 매출액은 1조5510억원이었으며 멀티플렉스의 총관객과 매출액 점유율이 98%에 달했다. 광주 극장가의 전체 매출액은 5749억원이었다. 멀티플렉스 매출은 99.6%인 5729억원이었으며 전체 관객 832만명중 멀티플렉스 관객은 829만명이었다.

◇전남 영화 관람료 가장 싸
광주·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극장의 평균 관람료는 6908원으로 전체 평균 7271원보다 낮았다. 가장 낮은 관람료를 보인 전남(6798원)과 전북, 충북에 이어 5번째 낮은 관람료다.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7000원 미만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다.

한국 영화 산업의 전반적인 활황에도 다양성 영화의 경우 개봉 편수는 342편으로 대폭 늘었지만 관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 아쉬움을 준다. 지난해 다양성 영화의 경우 최고 흥행작은 '로마 위드 러브'가 18만명,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이 14만명을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광주극장을 비롯해 CGV 터미널점에 무비 플라자가 오픈, 관객들의 선택의 폭이 다소 넓어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다함께 smile”

롯데갤러리 19일까지 알렉산더 안타제 작품 전시

‘유쾌하다.’

롯데갤러리는 오는 19일까지 그루지아 출신 작가인 알렉산더 안타제의 작품을 소개하는 ‘스마일 빌리지(Smile Village)’전을 연다.

알렉산더 안타제는 그루지아 트빌리시에서 흔하게 마주하는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 안에서 다채로운 색상들로 표현된 대상들은 제각기 유쾌한 표정으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다.

그루지아 트빌리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주변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분쟁 등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작가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삶의 행복과 재미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스마일 빌리지’는 작가가 꿈꾸는 이상향인 셈이다.

작품 속 동물들은 현실세계의 동물이 아니다. 경계심이나 적대감에서 벗어나, 보는 이로 하여금 순수한 웃음을 머금게 한다. 의인화된 동물들의 한없이 순수한 표정은 그들의 불안정한 형태와 맞물려 유쾌한 해학을 선물하기도 한다. 문의 062-221-180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노란 새’



‘난 겨울이 두렵지 않아’



‘피란 돼지’

국악방송 3월 개국

주파수 FM 99.3MHz

광주·나주·담양 송출

오는 3월부터 광주와 전남지역민들이 광주에서 송출하는 국악방송을 들게 된다.

2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지난달 28일 광주국악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국 허가 심의를 통과했다. 광주국악방송은 중앙방송격인 GBF 국악방송의 8번째 지역 네트워크이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첫 지역 국악방송국이다.

광주국악방송은 남구 중앙로 KBC광주방송 청사 내에 입주, 오는 3월 중순께 주파수 FM 99.3MHz(출력 1Kw)로 방송을 시작한다. 광주시, 나주시, 담

양군 지역민 200만명이 방송을 들을 수 있다.

광주국악방송은 상업광고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국악이 중심이 되는 전통문화 전반을 다룬다. 올해는 24시간 방송 중 4시간(16.6%)을 광주에서 제작한다. 이후 3년 이내에 자체 제작비율을 32% 수준까지 늘리는 등 지역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악방송은 국악 명창들과 지역 국악인이 출연하는 개국 축하무대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3년 박스오피스 TOP 10

순위	영화명	전국관객수
1	7번방의 선물	1280만
2	설국열차	934만
3	관상	913만
4	아이언맨 3	900만
5	베를린	716만
6	은밀하게 위대하게	696만
7	변호인	568만
8	숨바꼭질	560만
9	더 테러 라이브	557만
10	감시자들	550만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신년웨딩 큰잔치 2014년 2~3월 중 뷔페 28,000부터(부가세 별도)

웨딩 큰잔치 메뉴(200분 이상) 스테이크 33,000부터(부가세 별도)

무료제공 특전 : 객실 2실, 꽃길, 페백실, 음료, 주류 일반웨딩 200분 대형웨딩 1000분 수용가능

파격조건 회원 모집중 히노끼 천연 온천탕/사우나·헬스이용권(개인/가족/법인)

호텔무등파크 문의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

